



내일(JOB)을 향하여~

산곡중, 3학년 학생 '진로탐색프로그램' 행사

산곡중학교(교장 최동식)는 12월 8일 3학년 학생(164명)을 대상으로 '내일(Job)을 향하여'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인천청소년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했다.

진로디자인(6명) 등 다채로운 특강을 통해 간접적인 직업탐색의 기회가 됐고,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으로써 개인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3학년 학생들에게 직업 선호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를 해 선호도가 높은 6개 분야의 전문직업인 멘토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초청된 각 분야 전문직업인 멘토는 항공기승무원, 경찰, 보안전문가, 파티네, 물리치료사, 기자, 진로디자인 등이다.

학기 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꿈·개 탐색주간'에 실시된 이날 행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부(120분) 각 반에서 진로디자인가 학생들에게 진로설계(과정중

기부어, 드림 터치, 직업정보 등)를 안내했으며, 2부(90분) 6개 분야의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은 자유 토론식 대화형 특강으로 직업 세계(업무, 전망, 근무환경 등), 직업에 필요한 자질이나 요구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장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능동적 직업설계 구현에 동기를 제공하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막연한 직업인에 대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진로설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인 진로 의사결정 및 설계를 돕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

인천일보 기자 as@

덕적도 심 전체가 '들썩들썩'

덕적초·중·고교, 동아리 발표대회·경로효잔치

덕적초·중·고등학교(교장 윤일완)는 2016년 12월의 첫날 동아리 발표대회 및 경로효잔치를 개최했다. 학교장, 지역 유관기관장, 지역주민(학부모), 학생대표가 강당 앞에 모여 테이프 컷팅으로 동아리 발표대회 및 경로효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체험마당에서는 각 동아리의 특색에 맞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지나가는 주민, 교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선민대상'이라는 샌드위치 만들기 부스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샌드위치로 구성은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줬고, '덕적 아리따움'이라는 립밤 만들기 부스에서는 손님들의 입술을 촉촉하게 감싸줬다.

'RC I seed' RC가 및 미니 드론 작동 부스에서는 RC가 및 미니 드론을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손님들의 눈을 자극했다. '역사퀴즈매달' 부스에서는 역사퀴즈를 서로 맞추며 우리들의 역사 인식을 작은 울림을 줬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부스는 모의재판을 실재로 진행하며 관객들이 학생들이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에 매료돼 다른 부스로 이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한 멋진 작품, 수업시간에 나온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을 교감 선생이 자세히 소개해주며 학생들의 재능을 한껏 뽐냈다. 학생들의 1부 학습발표대회에서는 현실에 필요한 주제를 갖고 학

생들의 적절한 발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이어진 2부 경로효잔치에서는 학생들과 교사의 공연으로 장식됐다. 학생들은 피피티 같은 목소리로 노래했고, 멋진 동작과 유쾌한 분장으로 흥겨운 춤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이런 공연은 관객들의 숏소리며 멈추게 했고, 아이들의 모습을 머리와 마음속에 한 장면이라도 더 담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의 재롱잔치를 보듯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어깨를 들썩였다. 김치송댄스를 추는 유치원생들의 모습에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덕적초·중·고 교사들의 댄스공연 역시 볼거리 중 하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알 수 있게 됐고,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즐거움을 만끽했다.

동아리 발표대회 공연을 마친 아이들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서로를 격려했고, 앞장 공연을 다 관람하고 나오는 관객들은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따뜻한 악수를 청했다.

공연을 지켜본 노인회 회장은 "학생들의 멋진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다"고 격려의 말을 해줬고, 윤일완 교장은 "우리의 공연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관람해주신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덕적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지치고 외로움에 짓어오는 섬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포근한 두드림이었다.

인천일보 기자 as@



서해최북단 백령도에 온 손님

북포초, 2008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 방문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북포초등학교(교장 김필나)는 지난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스포츠 스타 체육 교실'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뜻깊은 체육시간을 선물했다. 잠정 4시간 배를 타며 겨울철 위험 파도를 헤치고 방문한 스포츠 스타는 바로 '2008 베이

징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동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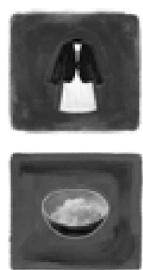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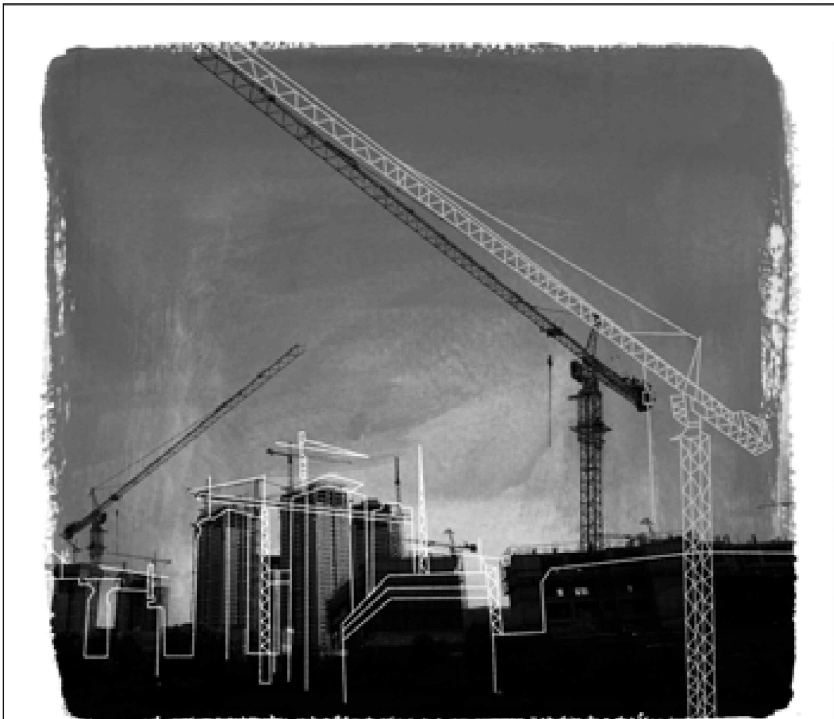
북포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6명은 황지만 선수의 진로상담,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며 소중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율거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황지만 선수는 학생들에게 먼저 기

본적인 그림 방법과 하이 클리어 동작을 알려줬다. 기본적인 자세 교정 이후 1:1 개인 레슨과 응용 기술을 선보이며 배드민턴의 즐거움을 전달했다. 배운 것을 토대로 미니게임을 실시하고, 퀘션 시합을 진행하며 황지만 선수와 학생들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황지만 선수는 "북포초 학생들의 예의 바르고 착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높아지면 기뻐하고, 앞으로 더 직접 체험 건강하게 밝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일보 기자 as@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움'

지움 있다. 지움 있다. 지움 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위생용품! 대한민국 경제협력에 꼭 필요한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국가발전의 핵심!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어 오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권장강국 KOREA를 짓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권장강국 KOREA를 짓습니다



미디어로 꿈꾸는 세상

부원여중, 시청자 교양 아카데미 개최

부원여자중학교(교장 임창식)는 12월 9일 교학생을 대상으로 SBS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연계해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청자 교양 아카데미 '미디어로 꿈꾸는 세상'을 개최했다.

을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의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져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익히는데 좋은 시간이 됐다.



진로 탐색의 하나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아나운서의 역할과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평소 TV 방송 관련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나운서의 지도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기

3학년 박소윤 학생은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 진행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의 설명과 시연은 꿈과 진로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했다.

임창식 교장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기

를 바라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기자 as@

동부교육지원청Wee센터,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권역 내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Wee센터는 12월 8일 이후 동부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동·남부 권역 초·중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 주제는 '가계도 분석 및 가족역동 분석'으로, 김영애가주최로 연구소사의 강연에 소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에 따라, 학교 상담 중 사이버폭력 피해 우리학생들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의 근본이 되는 가계도와 가족역동을 분석해보므로 상담자는 학생의 가족환경과 현재의 문제행동을 연결지어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상담하면 더 효과적일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날 강의에 참석한 한 전문상담(교)사는 "평소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나

의 가계도를 직접 분석해보면서 어떻게 학생의 가족도를 분석해서 상담 계획에 활용해야할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호정 중등교육과장은 "점점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위기학생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 상담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들이 위기학생들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여 상담을 통해 긍정적 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